

명원민속관 (茗園民俗館/ 한규설대감가 韓圭謨大監家)은 국민대학교 명원박물관 부속기관이자 현재 서울시 지정 민속문화재 제 7호이다. 1890년경에 건축된 주택으로 조선 말 참정대신을 지낸 한성판윤 한규설 유택으로서 원래 서울 중구 장교동에 위치하였다. 1980년 도시개발과 함께 멸실될 위기에서 국민대학교의 중흥을 이끈 성곡 김성곤 선생의 부인인 명원 김미희 여사가 당시 소유주였던 박준혁 선생의 부인 하옥순 여사로부터 기증받아 현재의 자리에 이축한 것이다. 아름다운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이 고택은 솥을 대문, 사랑채, 안채, 별채, 행랑채, 사당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남쪽 외곽에는 연못과 함께 녹야정, 초당이 자리 잡고 있어, 전형적인 조선조 상류층의 주택으로 60칸 규모에 격조있는 한옥의 원형이 잘 살려져 있다. 행랑마당 - 사랑마당 - 안마당 - 사당마당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위계는 조선조 사대부의 생활공간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

## 2022 학년도 풍류나누기 명인시리즈

명원박물관은 개관 이래 안채의 안마당을 공연장삼아 춘계, 추계 정기공연을 중심으로 문화공연을 진행 해왔다. 그 동안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새롭게 명원박물관 풍류나누기 < 명인시리즈 >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시리즈는 공연자와 관객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한옥의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하여 소박하지만 풍요로웠던 한국의 전통 풍류문화를 체험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2022 명원박물관 풍류나누기 < 명인시리즈 >는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인하여 관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언택트로 공연이 진행된다. 촬영된 공연영상은 아래 일정에 맞춰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2022년 4월 19일자로 전시 관련 실무 역량과 전통문화 콘텐츠를 결합시켜 전통문화를 보다 현대적 감각으로 구현해나가기 위해 박물관과 명원민속관이 명원박물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 유튜브 업로드 일시

1회	22.06.30(목요일) 2시	거문고 김선옥 명인 '風流의 멋'
2회	22.07.28(목요일) 2시	가야금 박은아 명인 '5월의 하늘 그리고 風流'
3회	22.08.25(목요일) 2시	정재 최경자 명인 '춤의 정원'



ID : kookmin\_myungwon



YouTube 국민대학교\_명원박물관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MYUNGWON MUSEUM

문의 02) 910-429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9길 64

# 정재 최경자 명인 춤의 정원

예술감독 : 김희선(국민대 교수)



◎ 공연일시 2022. 05. 23 월요일 오후1시



## 공연프로그램

### 춘앵전(春鶯囀)

출연: 최경자

출처: 국립국악원

조선 순조(純祖 1828) 때 창작된 향악정재(鄕樂呈才)의 하나이다. 이른 봄날 아침에 나무 가지에서 노래하는 죄꼬리의 자태를 무용화 한 것이다. 죄꼬리를 상징해 노란 색의 앵삼(鶯衫)을 입고, 화관을 쓰고, 오색 한삼(汗衫)을 양손에 끼고 제한된 공간인 돗자리(花紋席) 위에서 추는 춤으로 정재의 아름답고 우아한 춤사위가 함축되어진 대표적인 춤이다. 반주음악은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열불도드리, 타령 등이 연주된다.

### 검기무(劍器舞)

출연: 최경자 양선희

출처: 국립국악원

검기무(劍器舞)는 칼을 들고 추는 궁중무용으로 '검무(劍舞)'라고도 한다. 신라인들이 관창의 충성심과 넉을 기리기 위해 그의 형상을 닮은 가면을 쓰고 춤을 춘데서 유래되었다. 민간에서 전승되다가 1795년(정조 19)에 궁중무용으로 채택되면서 전투적인 느낌보다는 우아하고 유연한 동작으로 변화했고 칼도 무구화(舞具化)된 나무칼[木劍]을 사용한다. 제비처럼 날렵하게 허리를 앞뒤로 숙였다 젖히며 빙빙 도는 '연풍대' 동작이 일품으로 무사를 상징하는 전립(모자)과 전복(패자)을 입는다.

### 향발무(響鉢舞)

출연: 최경자 양선희

출처: 국립국악원

향발무(響鉢舞)는 '향발'이라는 작은 악기를 들고 추는 궁중무용이다. 타악기 중에 놋쇠판 두 개를 서로 부딪쳐 소리를 내는 악기를 자바라라고 하는데, 그 자바라를 작게 축소한 것이 향발이다. 오색 매듭을 늘어뜨리고 사슴가죽 끈을 달아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에 향발을 매어 서로 마주쳐 음악의 강(腔)과 박(拍)따라 소리를 내며 춤춘다.

### 무산향(舞山香)

출연: 최경자

출처: 국립국악원

무산향은 1828년 효명세자 때에 춘앵전과 함께 어머니 순원왕후의 사순(四旬) 생신 축하연을 위하여 만들어진 향악정재이다. 침상(寢牀) 모양과 같은 대모반(玳瑁盤) 위에서 춤을 추며 그 춤사위와 구성 형태는 춘앵전 보다 활달하고 동적이다. 단아한 정제미와 함께 연풍대를 도는 등, 힘이 있고 기교적인 춤사위로 궁중무용이 갖는 정중동 미학을 잘 표현하고 있다.

## 출연자 프로필

### ‘춤의 정원’

#### 최경자 명인



- 현) 국립국악원무용단 지도단원
- 궁중춤예술연구원 대표
- 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7호 호남살풀이춤 이수자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객원교수
- 무용역사기록학회 부회장
- 한국춤협회 상임이사

#### 양선희



- 현) 국립국악원무용단 지도단원
- 궁중춤예술연구원 안무자
- 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
-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 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이수자
- 국가무용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전수자

#### 예술감독 김희선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